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감로 같은 물' '감로처럼 내린 생명의 샘' 등으로 쓰이는 감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약(靈藥)인 달콤한 이슬이란 뜻이 있다. 감로는 한방울만 마셔도 불로불사(不老不死)한다. 그래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극찬해서 감로 수라고 한다. 숲 가운데에 감로수가 있다. 소주에 용안육(龍眼肉)이라는 한약재와 대추, 포도, 살구씨, 구기자, 두충, 속지황을 넣어 달인 술을 감로수라고 불러 건강 장수의 술로 애용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감로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도리천에는 달콤한 영액(靈液)이 있는데 이 액체를 마시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장수한다고 전한다. 그래서 감로는 '불사주(不死酒)'로 번역된다. 일명 천신

감로(甘露)와 넥타

감로-도리천의 영약 · 깨달음의 맛 넥타-제우스신 등이 마시는 음료

의 음료라고 한다. 서양 신화(神話)에서는 제우스 신을 비롯한 천신들이 '넥타(Nectar)'를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즘에 사과 넥타, 포도 넥타 등으로 상표를 달아 파는 과일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서양 신화에서는 오직 신들만이 신주를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감로의 맛을 본다고 한다. 그래서 오묘한 깨달음의 경지를 '감로미(甘露味)'라 했고 열반에 도달하는 문을 '감로문(甘露門)'이라고 했다. <잡아함경(雜阿含經)> 24권 608(감로경·甘露經)에는 성인의 법과 도를 이뤄 감로법을 얻으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출요경(出曜經)>에는 나라에 불법이 가득하면 감로가 내린다고 했다. <출요경>은 감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계(戒)를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고 전한다.

따라서 감로는 자신의 마음 속에 맺히는 열반경계(涅槃境界)다. 감로는 하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도량에서 찾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영생불멸의 영약이면서 넥타라는 이름의 신주와 다른 점이다. * 참고 안길모호 '이권사편 아담법석'

감 · 로 · 심 · 장 · 회

● 월런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병아리와 어미닭처럼...”

스승의 길과 동사(同事)

<잡아함경(雜阿含經)>에 사십사(四攝事)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사십사(四攝法과 같은 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이끌고 끌어들이고 가르침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일로서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를 하위 개념으로 내포하고 있다.

보시라 함은 물품을 베풀며(財布施), 부처님 가르침을 전함(法布施) 말하며, 애어는 대화에서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정이 넘쳐 흐르는 말을 써야 함을 말하고, 이행은 선행(善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동사는 상대편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사십사(四攝事)의 실천이 곧 “스승의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여기에서는 동사(同事)의 문제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자의 자질 중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동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승의 길로서의 동사에는 사제동행, 공감적 이해, 출타동시(哮喘同時)가 있다. 사제동행은 교사가 학생과 함께 같은 일을 함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9>

공감적 이해는 특히 상담활동에서 강조되는 핵심개념이다. 피상담자를 설득하고 충고하고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담자의 처지에 함께 서서 고민하고 괴로워 하며 슬퍼함을 말한다. 상담자가 공감적 이해를 하면 피상담자는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감적 이해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공감적 이해에 관한 예를 학습사례에서 들 수 있다. 순자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한글을 읽지 못했다. 새로 담임을 맡은 K선생은 정성을 다하여 순자가 한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 며칠동안은 방과 후에 남겨 특별지도를 하였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K교사는 한글을 모르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다만 저지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자세히 살펴본 즉, 순자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신체적 이유, 집이 가난하다는 경제적 이유, 한글을 모른다는 자적인 이유 등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담임하였던 교사에게 물어 보아도 순자는 관심 밖의 아동이었다. K교사는 순자는 인정감(認定感)이 좌절되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우선 순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노력하였다. 어느 정도 친밀해진 후 순자를 방과 후에 남기고 다음 날 배울 국어의 읽기 연습을 시켰다. 한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 교사가 지명하면 암기한 부분만 읽도록 하여 약속이 성립되었다. 다음 날 순자는 이 일을 성공리에 끝마쳤으나 다른 아동들은 그가 우는 줄 알고 있었으며 그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 때 K교사는 근엄한 태도

로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의껏 칭찬해 주었다. 이런 일이 있던 지 한 달만에 드디어 순자는 한글을 자유롭게 읽게 되었다. K교사가 순자와 한마음이 되어 순자편에서 서서 그를 이해하고 지도한 결과였다. 세번째는 출타동시(哮喘同時)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출타동시는 선가(禪家)에서 쓰는 개념이며, <벽암록(碧巖錄)>에 있는 내용을 박선

사제 동행 학생과 똑같이 행동하는 지도법

공감적 이해 학생의 입장에서 해결책 구하자

출타 동시 배움을 이루도록 제자와 한마음

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병아리가 쪼고(쪼) 어미닭이 쪼아(啄) 병아리가 쪼는 때 겹칠지 없어짐에 병아리와 어미닭의 분별을 모두 없어버리고 기연(機緣)에 응하여 어긋남이 없이 같은 길에서 함께 노력하여 하나가 된다(子母啄子無礙 子母俱忘 應緣不錯 同道唱和)

<벽암록>의 비유는 각성(覺醒)과 관련된 사제관계에 대한 비유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적기에 스승이 제자와 한 마음이 되어 제자의 배움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말한다. 여기에서 쪼(啄)이라 함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밖으로 나올 때 달걀 속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하며 탁(啄)은 어미닭이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도록 돕기 위하여 밖에서 달걀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한다.

적기에 출타동시(哮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며, 어느 한쪽이 빠르거나 늦어도 성사(成事)될 수 없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인간발달에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알맞은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선택의 결정적 시기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에 본인의 잠재적 능력에 따르는 알맞은 지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필자는 오래전에 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일이 있었다. 이 때 K라는 학생은 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만능이었으며 지적인 능력도 대단히 우수하였다. 그는 진학문제가 있어서 영어영문학과 체육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본인은 체육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당시만 하여도 우수한 학력소지자들은 체육학보다는 영어영문학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의논하러 왔다. 나는 강하게 그에게 체육이론을 전공할 것을 권하였으며, 그 학생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체육학을 전공한 그는

오늘날 체육이론의 제1인자인 교수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진로선택이라는 결정적 시기에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이와 같이 대성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한 바 있다.

결정적 시기에 자녀를 돕는 일은 가정교육에서 더욱 중요하다. 프로이드(Freud)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3~5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초기경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발달에 필요한 문화적 심리적 요소의 결핍은 문화실조(文化失調)현상을 가져온다고 한다. 문화실조는 영양실조의 신체적 현상과 대비시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승의 길은 사십사(四攝事)인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실천이며, 특히 동사인 사제동행, 공감적 이해, 출타동시(哮喘同時)는 오늘날의 교사에게서 강조되어야 할 “스승의 길”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부처님가르침 교육개혁추진에 큰 힘”

김중서박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40여년간 교육에 종사해오면서 이번 교육개혁위원장으로의 임무가 가장 보람이 컸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탄탄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2월24일로 1년10개월의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친 김중서박사(서울대 명예교수), 김박사는 이에 앞서 11일 청와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해 유아교육체계의 공교육화 등 12개 분야를 주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지표'를 새 정부에 보고했다. 김박사는 앞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서울 성북동 김상사(주지 정하)에 매일 출근(?)해 참신하고 기도수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서박사 前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고있는 김중서박사(오른쪽).

위영란 기자

권 무인년(운달 · 드는해) 권 육신통(육경신) · 정진대법회

운달드는 해에는 긴세월이 아니라도 도통하여 직접 성불할 수 있는 법과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법과 영기를 직접 천도시키는 법을 득도하려면 육신통기에도 입문하여 천인통, 타심통, 천리통, 신축통, 속영통, 무진통을 성취하여 1년 2천 도인 · 신선 · 선사경지에 득도하시고 이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잠수수행을 물리칠 수 있는 도통법을 도인들께서 비전으로 직승하는 도정경의 주문과 10장생간장 비법의 심기선법기공과 복식호흡과, 집귀나 좌공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주문법들을 지도하여 금년 운달 드는해에 입문하시면 도통은 물론 소원을 성취하며 조심산소, 이장, 사초, 목은혼례등을 해도 아무 마진이 없으며 경신일 정오와 밤자시에 천문과 천복을 받고 수미산제석

천공신종과 8만 4천 회일신종, 법회성종 모든 신종들이 옹호하여 득도대도인이 못되더라도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날이 오니 두루 통칭하시기 바랍니다. 금년기도 6회가 들었으며 두달에 한번이 들니다.

- 입계일: 98년 3월 13일 亥時
●해계일: 98년 3월 14일 亥時
●회비: 1박 2일 채식제공, 편한 옷차림, 5만원, 평생회비 33만원(초보자 분납가능)
●기도처: 서울 동자동 신대방동 360-188 (구모자원고개 삼성 A.P.T.앞 하차)
●전화: (주)02-821-6622 (야)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으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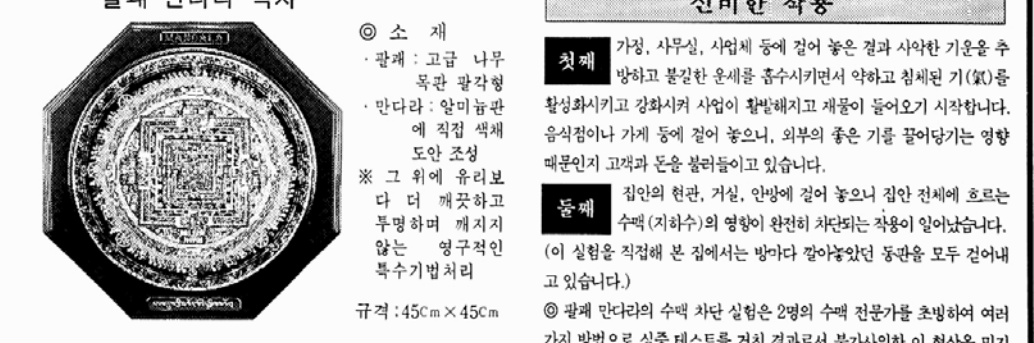
- ※ 책자 내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배우어야만 하는가?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5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분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명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랄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보급가: ₩ 209,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 제
· 팔괘: 고급 나무 목판 광각형
· 만다라: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 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45cm x 45cm
◎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예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장,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기념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선물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